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잉여의 시대에 감사하라 성경: 고린도후서 7장 1-11절
(Tag:감사,잉여,청년,건국,대한민국,신양성경,고린도후서)

1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2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3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4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 도다

5 우리가 마케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6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7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8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앎이라

9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10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11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발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고후7:1-11)

잉여란 흑자를 의미한다. 잉여의 시대란 풍요로운 시대를 의미한다. 물론 어떤 의미에서는 사용하고 남은 나머지를 뜻하기도 한다. 성경적으로 잉여란 부족한 시대를 대비하라는 의미를 뜻한다.

잉여의 시대에 흥청망청 소비하면 어려운 시기가 오면 큰 고난을 견디지 못하여 망하게 된다. 그러므로 잉여의 시대는 축복의 시대이며, 예비하는 시대를 말한다.

대한민국은 현재 잉여의 시대를 지나고 있다. 물론 개인적으로 또는 어떤 측면에서는 고통의 시대이기도 하며, 부족의 시대이기도 하다.

소득불균형으로 인한 정의의 부재 시대이기도하며, 청년들의 일자리가 없어 청년 희망 고갈 시대이기도 하다. 세랭계티 초원에 모여있는 들소마냥, 청년들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혈떡이면서 이 시대를 지나고 있다. 그래서 한없이 페이스북을 들여다 보지만, 결국은 잘 나가고 있는 친구들의 소식만 접하게 되어 기분이 좋아야할지 우울해야 할지를 결정하는데 약간 망설이다가, 좋아요 버튼을 누른다. 좋아요 버튼이 이 시대의 품앗이가 되었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긍정적인 시각이 중요하다. 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시대를 허락하셨을까? 그리고 우리의 숙제가 무엇일까? 생각하면 된다.

단순히 생각을 호떡 뒤집듯이 뒤집어도 신선한 마음이 든다. 우리 청년들은 남아도는 시대를 살아가는게 아니라, 풍요의 시대를 살고 있다. 청년들로 넘쳐나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직장이 없는 청년들은 직장이 있는 청년들보다 더 행복할 수 있다. 생산활동에 뛰어들어서 정신없이 일하는 청년들이 잘 하고 있으니 안심하자. 그들에게 한국의 경제를 맡기자. 직장이 없는 청년들은 맘껏 한가로운

시대를 만끽할 필요가 있다. 충분히 놀고, 충분히 잠을 자 두자. 컴퓨터 게임도 지칠때까지 하자. 지겹도록. 잘 놀고 나면, 더 재밌고 더 멋지게 놀 수 있는 것을 연구하게 된다. 충분히 잠을 잘 자 두면 창의력이 뛰어나게 된다. 컴퓨터 게임을 지겹도록 하면 결국에는 그것이 얼마나 재미없는 것인지를 깨닫게 된다. 엄마에게 들킬까봐서 조마조마 하면서 게임을 하는 사람은 게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단, 즐기되 타락하지는 말아야 한다. 타락하면 최악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많은 것들을 경험하되 타락하면 지는 것이다.

9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네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전11:9)

몇 년전에는 게임에 빠져있던 어떤 청년은 이제 일에 빠져있다. 어떻게 하면 일을 더 잘할 수 있을까에 도전한다. 게임의 레벨을 높이듯이 현실의 레벨을 높이는데 정열을 쏟아 붓는다.

만약 일 잘하는 청년들이 일을 해주지 않았다면 내가 그 일을 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은 컴퓨터가, 기계가, 또는 외국의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청년들의 일들을 대신 해 주고 있다. 좋은 일이다. 이제 우리나라 청년들은 지겨운 일에서 해방되었다. 과거에 우리 청년들은 방직공장에서, 을지로에서, 청계천에서, 구로공단에서, 저임금으로 힘겨운 삶을 살면서 청년시절을 지냈다. 그나마 행복했던 것은 스피커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김광한의 팝스 다이얼이었다. 당시에는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여행이나, 게임이나, 스펙을 쌓는다는 것들은 꿈도 꾸지 못한채 온 젊음을 보내야 했던 시절도 있었다.

그런데 이제 잉여의 시대가 되어서 젊은이들은 배낭여행을 갈수도 있고, 여러 가지 체험이나 실험을 할 수도 있고, 다양한 모임에 참여할 수 있고 다양한 기술들을 습득할 수 있다. 즉 더 많은 세상과 사람들과 경험들을 체험할 수 있게 되었다.

인류의 진보는 이처럼 잉여의 시대를 잘 보낸 사람들로부터 시작된

다. 이 시기를 허송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시기를 보람있게 보낸 사람들이 더 많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가?

1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 말씀의 핵심은 이렇다. 너의 영을 깨끗하게 하라. 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너의 생각을 깨끗하게 하라. 너의 영혼을 더럽히지 말라. 너의 삶을 더럽히지 말라, 허송하지 말라, 남 탓하지 말고, 비판하는데 낭비하지 말라. 비판하는 짓은 자신의 영혼을 일부러 부패시키는 짓이기 때문이다. 비판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된다.

2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이렇게 영혼과 생각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면 비로소 바울 일행을 마음으로 영접할 수 있게 된다. 마음이 거룩해지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마음으로 영접할 수 있게 된다.

무릇 성직자라면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아니하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성직자는 이처럼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정결해야 한다는 뜻이다. 너희 고린도 사람들아, 죄에서 떠나고 성직자들을 마음으로 영접하라는 말씀이다.(당시의 고린도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더러워져 있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는 성직자들이 합리적으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이 차단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오후에는 한국교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까 한다.)

잉여의 시대에 타락하기 쉽지만, 사실은 항상 젊은이들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타락하기 쉽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타락하지 말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자신이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다고 여긴다면 그래도 그는 방법이 있다. 그는 회개한 다음 거룩한 성직자를 도와서 사명을 감당하면 된다.

3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바울은 자신의 이 말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3절 말씀을 기록하였다. 정죄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함께 죽는다는 말은 죄인으로서의 내가 죽는 것을 말하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한다는 말은 함께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일에 동참하자는 권유이다.

4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 도다

바울은 여러 가지 환난이 많았지만, 담대하였다. 왜냐면 갖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그런 환난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길렀기 때문이다. 그에게는 자랑하는 것도 많았다.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가장 큰 자랑이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도우신다. 적극적으로 도우신다.

실제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장 극복하기 쉬운 어려움이다. 세상에는 갖가지 어려움이 가득하다.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담대하였다. 그리고 모든 어려움 가운데 위로를 받았고, 또 위로하는 자가 되었고, 감사하는 자가 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에게 큰 기

뿔이 되었다.

5 우리가 마케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6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은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이 말씀을 읽으니 이승만 대통령이 떠오른다. 나는 요즘 한국 건국사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다. 내가 몰랐던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한국 건국사를 공부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저절로 느끼게 된다. 진실로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사랑하신다.

대한민국이 건국된지 얼마 되지 않아, 1948년 9월 9일 북한은 소련군 철수를 요구했다. (이것은 미군 철수 요구용임. 이미 북한은 남침준비를 끝내가고 있었다. 소련으로부터 탱크도 받았다. 모택동으로부터 전쟁 허가도 받았다.)

남한의 좌파국회의원 40여명은 북쪽의 지령을 받고 민주주의 명분으로 10월13일 미군 철수 요청하였다.

남로당 일당이 미군 물러가라고 데모하였다. 당시 하지 중장이 앙케이트 조사하여 한국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자유민주주의 중 택일하게 하였다. 그 결과 국민의 84%가 공산주의 선택하였다. 미군은 1949년 5월까지 전원 철수 하였다. 그러나 이승만은 함께 가지 않았다.

1년후 1950년 북한 김일성은 남침을 감행하였다.

한국전쟁을 보고받은 트루만대통령은 냉담하였다.

빌리그래함 목사가(당시 28세.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한국에 50만 기독교인이 있다고 미군이 반드시 참전해서 한국을 도와야 한다는 내용의 전보를 트루만 대통령에게 보냈다. 트루만은 하는 수 없이 UN을 소집하였다.

그리고 이승만의 친구 맥아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실행하였다.

나는 풍전등화와 같은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리셨는지를 알게 되었다. 이 외에도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모두 기적과 같은

이야기들이다.

오늘 대한민국은 드디어 잉여의 시대를 맞이하였다.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해 특히 청년들을 통해 하실 일들이 많다. 우리는 이 시대에 감사하며 통일 한국을 예비하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다짐하자. 아멘.

<찬양예배>

제목 : 새 시대, 새 물결, 새 교회 성경: 에베소서 1장 17-23절
(Tag:교회론,새교회,새시대,브랜드교회,에베소서,신약성경)

17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19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20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21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22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23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엡1:17-23)

현대에 어울리는 새로운 형태의 교회에 대한 필요성 대두.

브랜드교회 or 비즈니스 처치 (기업형 경영 교회, 갈등의 소지->법제화를 통한 계약형 경영, 당회의 기능을 회사의 이사회에게 맡기는 방식, 이사진의 구성은 성직자와 평신도로 구성되나, 성직자와 평신도의 비율은 정관에 규정함. 정관의 목적은 교회의 목적과 동일하게 함. 그러나 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함. -주주들과 이사들의 출연으로 회사를 운영하며, 재산에 관련된 것은 회사의 소유로 함. 회사는 기본적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의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수익사업을 영위함. 영리수익은 교회와 회사를 유지하는데 사용하고, 헌금은 전액 외부 기부형으로만 사용함을 최종 목적으로 삼는다.)

현대 교인들의 경향

- 담임목사의 청렴한 영성을 요구함
- 담임목사의 후계구도 때문에 교회가 짐을 떠 안게 해서는 안됨
- 헌금에 대한 부담을 가지기 원치 않음
- 건축이나, 교회 재정을 감당하기 원치 않음
- 봉사활동에 크게 헌신하고 싶지 않음.

- 그러나 유명하고 훌륭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원함.
- 교회 시설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교회를 원함.
- 나와 잘 어울리는 공동체 의식이 살아있는 교회를 원함.
- 나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만을 기억하는 교회를 원함.
- 사생활에 대해서 간섭이나 지적질을 받고 싶지 않음.

교회가 주식회사 체계를 갖추어야 함. (특히 도시에서)

-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든 준비를 완비해야 함.
- 교회가 목회자에 관한 모든 것, 목회에 대한 모든 것, 목양에 대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고 시작해야 함.

-교회에 신뢰할 만한 브랜드가 있어야 함. 그리고 그 신뢰를 유지할 책임과 능력이 있어야 함.

-어디로 이사를 가든지 동일한 교회가 존재해야 함.

-교회가 비즈니스와 네트워크를 갖추어야 함.

-공동으로 진행해야 할 사항. 교리, 목적, 선교. 비즈니스, 성직자, 설교, 웹사이트, 방송국, 교육센터, 전도특공대, 평신도요원, 예식부, 법무행정, 대외교섭, 생활 프로그램.

-개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항. 목양, 평신도 리더, 공동체 활동, 시설 관리, 전도, 경조, 심방.